

오션'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에 쥬피터익스프레스는 보석류, 혈액 샘플, 역사유물, 전자제품, 생물연구용 세포 등 특이한 제품들을 국제간 운송하는 특수물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전 세계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제품 코스트에서 물류비가 20~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간 경쟁심화로 경영기법과

노하우, 핵심기술이 진보할 수 있는 데까지 진보하다보니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는 물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마지막 경쟁의 무대'라는 차원에서 물류를 '제3의 대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들은 거대기업들이 손대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틈새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를 무기로 세계시장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쥬피터 익스프레스가 새로운 물류의 세계를 열어 나기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Q** 토종 국제운송업계에 한말씀 하신다면?

A 다국적 특송기업은 사람, 시스템, 네트워크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Standard)를 가진 인력에 1년에도 1억달러 이상의 IT투자, 수백에게 이르는 지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 네트워크는 단순히 몇 사람 보내 사무실을 여는 수준이 아니라 통관, 배송, 시스템, 물류 등 일관 서비스를 갖춘 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국내에 아무리 큰 대형기업들이라도 다국적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는 시도입니다. 다만 토종 기업들은 글로벌한 경영마인드를 갖

추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의 길목에서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승부해야 할 것입니다.

**Q** 이 외에 또 필요한 것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A 기업이 정신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기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후배에게 미래

요지만 모양새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A 30년 동안 글로벌 기업에서 특송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모델을 후배들에게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물류연구원'을 만들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진 물류인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

## 토종기업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춰라

모델을 제시하고 키우는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후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완전 리모델링 했는데 그 이유는?

A 아시아시피 방화동에 사옥을 매입해 완전히 새로 꾸였고 기존 공항 사무실도 리모델링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자부심을 위한 것입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참신한 마인드, 정성스런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인제가 모이게 됩니다. 내용도 중

**Q** 한국물류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A 한국은 이미 국제 시장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폐쇄적 시장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국제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Q** 본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글로벌 스탠다드도 무엇인지, 업계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등을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통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즉, 단순 정보 전달보다 게도지가 되길 바랍니다. **IM**

추동화 사장은 누구?

## 물류 1세대이자 국제특송업계 巨木

지난해 9월 특수물류 전문회사인 쥬피터 익스프레스의 오너로 취임한 추동화 사장은 지난 26년간 DHL 제1시 DHL 코리아 전무이사, DHL의 계열 기업으로서 항공, 해운 포워더(복합운송수선업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DHL 글로벌 포워딩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추동화 사장은 한국 물류업계의 1세대로서 DHL 코리아의 한국 내에서의 위상정립에 큰 공헌을 했고,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물류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국내 물류 전문 인력 양성기관인 한진 물류스쿨, 물류스쿨, 물류산업의 경영자들 코스인 무역협회 아카데미 GLMP, 인천대동북아물류대학원, 연세대 경영대학원 e-SCM 전문경영자 과정 등 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제물류를 강의하고 있는 물류 전문가다. 그는 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등 왕성한 체력의 소유자이며, 뒤늦은 나이에 학문의 세계에 뛰어들어 현재 서강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다.